

경찰공무원의 자살 후 심리부검 도입과 자살 예방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Autopsies and the Development of Suicide Prevention Model for Police Officials

송혜진* · 오세연**
Song, Hye-Jin · Oh, Sei-Youen

요약

매년 20여명 정도의 경찰이 자살에 이르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찰의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경찰의 치안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잔혹한 범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자살유형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자살예방모형 개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6년간(2016~2021) 자살한 경찰관은 총 13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는 업무량이 많은 소방관의 2배, 우체국 집배원의 4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자살 비율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1.7배 가량 높은 비율인데 개인역량의 문제로 순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중 업무와 관련된 자살은 심리부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거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자살을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관련자 처벌이나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고 경찰 내에서도 개인 일로 치부하는 등 조직적인 문제로 공론화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찰공무원 자살이 잇따르면서 나타난 원인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업무부담, 상하 관계에서의 갈등, 진급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경찰관들은 산재 인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자살한 경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부검을 통한 예방대책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에 대한 심리학적 자료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사망조사 접근법으로 사후에 시신을 부검하는 것처럼, 심리부검은 특정 사망 종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망자의 삶과 사고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개방하는' 작업이다. 즉, 심리부검은 자살여부의 감별과 자살로 판명된 사례에서 사망자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규명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심리부검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현재 전국에서 경찰들을 위해 상담해주는 인력은 30여 명이 안되고,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약 한 달에 2명꼴로 사망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그 추이가 적지는 않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직무와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직장내 문제 등 그로 인한 가정문제와 건강문제도 뒤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의 징후를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는데 이것은 경찰이라는 직업상 직무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우울 및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한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건강한 경찰이 치안을 살피준다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의 자살사망 시 심리부검을 도입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경찰 내 자살 예방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knupe21@hanmail.net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s092724@naver.com

3. 결론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과 타 공무원의 비해서도 경찰 자살률은 상당히 높은편이다. 우리나라도 경찰의 자살사망 시 심리부검을 도입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경찰내 자살 예방모형을 개발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명될 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1. 경찰공무원의 심리부검 도입

경찰의 심리부검을 도입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의뢰하는 방안이다. 경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이를 경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2. 자살 예방모형 개발로 자살률 예방정책

기본적인 자살예방 교육으로는 자살률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심리부검을 한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들과 결과를 분석한다면 경찰의 자살예방 정책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만석, 김명식 (2020), “경찰공무원 자살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나경세 외3인 (2015), “심리부검 :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제54권 제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호인, 고선규 (2016), “심리부검에 대한 고찰과 제언”, 한국심리학회, 제22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지.
고기봉, 채진, 박승균 (2021), “소방공무원 자살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방재학회지, 제21권 제5호, 한국방재학회.